차이나 마켓 워치

CHINA Market Watch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제조업 부가가치 12년 연속 세계 1위

■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제조업 부가가치는 31.4조 위안(약 6,116조 원)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4%에 달하였고 2010년부터 12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

- 산업 부가가치는 2012년 20.9조 위안(약 4,079조 원)에서 2021년 37.3조 위안(약 7,265조 원), 이 중 제조업 부가가치는 17조 위안(약 3,311조 원)에서 31.4조 위안(약 6,116조 원)으로 성장

-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선박 등 산업사슬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제고되었고 컨테이너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0.6%, 칩 생산량은 전년 대비 33.3% 증가하였으며, 신형 디스플레이, 전동 공구, 신소재 등 분야가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음

- 첨단기술 제조업*과 장비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각각 18.2%, 12.9% 증가세를 보임. 제조업 디지털화 전환이 가속화되어 5G 기지국은 142.5만 개 이상, 5G 휴대폰 단말 이용자는 5.2억 명에 달함. 제조업 스마트화 전환이 가속화되어 중점 분야의 핵심 공정 디지털 제어율이 55.3%, 디지털 연구개발 디자인공구 보급률이 74.7%로 제고됨

  *첨단기술 제조업 : 의약품, 항공우주 설비, 전자통신 설비, 컴퓨터 및 사무용 설비, 의료기기 및 계측기, 감광재료 제조업 등을 포함

자료원 : 인민일보
http://www.gov.cn/xinwen/2022-03/10/content_5678190.htm

2 中, 2025년 수소차 보유량 10만 대 달할 전망

■ 올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중국이 '탄소 배출정점 도달 및 탄소중립' 목표를 제기한 후 처음 개최하는 대형 이벤트로, 동 행사기간 동안 총 816대의 수소차가 시범운영을 개시하였음

- 2021년 3월 수소에너지 산업이 '14차 5개년 규획' 요강에 포함되었고 2021년까지 중국은 수소에너지와 연료배터리 연구개발에 20억 위안(약 3,897억 원)을 넘게 투자함.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14차 5개년 규획 산업 친환경 발전규획'에서도 수소에너지 기술 혁신과 인프라시설 건설 가속화 및 수소에너지 다원화 이용을 언급하였음

- '중국의 수소산업 발전보고서(2020년)'에 따르면 수소차 보유량은 2020년 7,352대에서 2025년 10만 대로 증가하여 2025년 수소차 시장규모가 800억 위안(약 15.6조 원)에 달할 전망

- 자동차 업체들은 수소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상하이자동차그룹은 2025년 전에 10종의 수소차, 창청자동차는 C급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SUV와 100대의 49톤급 수소트랙터, 현대그룹은 2023년 수소 전기트럭(XCIENT FUEL CELL)을 선보일 계획임

자료원 : 베이징상보망
https://www.bbtnews.com.cn/2022/0309/430942.shtml

3 中, 81개 상장회사 산업 인수합병(M&A) 펀드 조성

■ 상장회사의 산업 인수합병(M&A) 펀드 조성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올해 3월 10일까지 81개 상장회사가 참여함. 이 중 60%가 반도체와 신에너지 분야에 투자함

- 2월 9일 훙푸한(鸿富瀚) 회사는 선전후이신(汇芯)지분투자 관리유한회사가 설립한 펀드에 참여하여 마이크로파 RF 칩과 고주파 아날로그 칩에 투자한다고 밝혔음. 초기 투자규모는 2,862만 위안(약 55.7억 원)으로 훙푸한社가 전체의 37%인 1,060만 위안(약 20.6억 원)을 출자함

- 한편 올해 2월 리튬 배터리 분야 4대 선도기업인 윈톈화(云天化), 언제주식(恩捷股份), EVE에너지(亿纬锂能), 화유홀딩스(华友控股)가 공동으로 윈난성 위시(玉溪)에 천억 위안 규모의 신에너지차 배터리 산업클러스터를 건설한다고 밝혔으며, 1, 2기 프로젝트 투자액을 517억 위안(약 10조 원)으로 설정하여 자본시장의 주목을 받았음. 이외에도 일부 상장회사들이 신에너지, 반도체 등 분야에 크로스오버 투자를 진행하였음

- 업계 관계자는 상장회사가 산업 인수합병 펀드 조성은 투자 수요가 증가하여 사모펀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산업자본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산업사슬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통합하는데, 이는 일종의 재투자 방식이라고 전했음

자료원 : 증권일보
http://www.zqrb.cn/gscy/gongsi/2022-03-11/A1646926611719.html

4 中, 1~2월 자동차 판매량 7.5%, 신에너지차 1.5배 증가

■ 중국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2월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8.8%, 7.5% 증가한 423.5만 대와 426.8만 대임

- 이 중 승용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17.6%, 14.4% 증가한 351.2만 대, 367.4만 대로 집계. 본토 승용차 판매량은 20% 증가한 163.7만 대로 전체의 44.6%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대비 2.2%p 상승하였음. 외국계 브랜드 비중은 독일계, 일본계, 미국계, 한국계, 프랑스계가 각각 21.2%, 21.1%, 9.5%, 1.8%, 0.8%로 나타남

- 한편 신에너지차 1~2월 생산량 및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6배, 1.5배 증가한 82.0만 대, 76.5만 대임

자료원 : 왕이자동차, 베이징상보
https://auto.163.com/22/0311/16/H26MN9F6000884MM.html https://www.bbtnews.com.cn/2022/0311/431131.shtml

5 中, 1~2월 반도체 관련 업체 실적 양호

■ 올해 1~2월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양호한 실적을 거두었으며, 업계 관계자는 신에너지차, 사물인터넷, 5G 통신 등 신산업의 반도체 수요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업체별 실적을 보면 중국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공급사 SMIC(中芯国际)의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59.1% 증가한 12.2억 달러, 순이익은 94.9% 증가한 3.1억 달러이고, 웨이퍼 제조사 화룬웨이(华润微)의 매출은 25% 증가한 16.4억 위안(약 3,193억원), 순이익은 75% 증가한 3.6억 위안(약 701억원)이며, 메모리반도체 제조사 란치커지(澜起科技)의 매출은 211% 증가한 6.2억 위안(약 1,207억원), 순이익은 157% 증가한 2.2억 위안(약 428억원)을 달성

- 한편 반도체 설비 제조사 베이팡화창(北方华创)의 매출은 135% 증가한 13.7억 위안(약 2,665억원), 신규 주문량은 60% 증가한 30억 위안(약 5,846억원)에 달했고, 반도체 검사설비 제조사 화펑처쿵(华峰测控)의 매출은 172% 증가한 2억 위안(약 390억원), 순이익은 241.4% 증가한 1억 위안(약 195억원)을 기록했으며, 실리콘 웨이퍼 제조사 리앙웨이(立昂微)의 매출은 84% 증가한 4.6억 위안(약 896억원), 순이익은 253% 증가한 1.3억 위안(약 253억원)임

- 컨설팅업체 궈타이쥔안(国泰君安)에 따르면 일본, 한국 등 해외 반도체 소재 생산업체가 생산을 확대하지 않아 실리콘 웨이퍼 등 반도체 소재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 지속될 전망. 업계 애널리스트는 2021년 도입한 반도체 설비가 2022년 하반기 가동에 들어가면 반도체 소재는 설비 다음으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하였음

자료원 : 증권일보
http://www.ce.cn/cysc/tech/gd2012/202203/14/t20220314_37398657.shtml

6 광저우시 화장품 업체, RCEP 발효로 원료 수입 관세 절감

■ 광저우시는 중국내 최대 화장품 생산기지 중 하나로 전국 1/3의 화장품 생산업체를 보유하고 있음. 바이윈(白云)구에만 화장품 생산업체 1,400개사와 유통업체 6,000개사가 운집되어 매년 100억 건의 화장품 및 스킨케어를 생산하여 국내외로 공급하고 있음

- 올해 RCEP 발효로 일본에서 수입하는 고급 계면활성제와 에센셜 오일 등 화장품 원료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현지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화안탕(花安堂)바이오회사 관계자는 RCEP 발효로 인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20여 개 품목의 화장품 원료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당사는 올해에만 30만 위안(약 5,837만 원)의 관세를 절감 가능하여 그만큼 더 많은 규모의 자금을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음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www.jjckb.cn/2022-03/11/c_1310509293.htm